



정규과정 - 통하는 글쓰기 기본

주제 : 실감나는 글을 쓰려면?

실감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그 중 설득력과 신뢰도가 높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튜터 한명섭

“사실감 넘치는 글을 쓰려면?”

작가라면 사실감 넘치는 글을 쓰기 위해 애쓰기 마련이다.

독자들은 실감나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의 차이를 알아본다.

작가는 보통 글 속에 담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다거나 했다면 그 경험을 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작가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자들은 의류 제조업자, 교수, 자동차 정비공, 의사, 변호사, 개 조련사 혹은 그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자신이 쓰고 있을 글과 관련된 사실들과 절차, 분위기, 업계 사람들의 대화,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들에 대해 잘 파악해야 전문가들이 볼 때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작가가 글에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배울 수 있는 길은 대략 세 가지가 있다.

책과 개인적인 관찰, 그리고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그것이다.



자신이 쓰는 시나리오에 사실감을 부여하려면

“레퍼런스 참고와 시나리오 고증의 시간” 을 가지자.

작가는 자신이 집필하는 영역에 대해 세부적인 지식이 많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곁에 두고 **수시로 참고해야 할 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작가 자신이 몸소 관찰하는 방법이다. 작가는 추측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에 답을 내용을 찾아야 한다.**

어떤 장소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만약 글의 배경이 잘 알려진 장소라면,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더라도 한 번 더 방문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곳에는 유명한 구경거리도 많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뒷골목도

존재한다. 작가가 선택한 특별한 장소가 어디일지는 몰라도,

글에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뒷골목의 모습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놓자.
시나리오 쓸 때에 사진을 보면서
실감나게 쓸 수 있다.”

“직접 주인공을 만나 질문하자”



세 번째 방법인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에 대해 알아보자.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기 방법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가볍게, 그리고 **아무 의도도 없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이다.**

자기가 글을 쓰는데 정보가 필요하다고 알리지 말고 그저 흥미로워서 질문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어적이 되거나 대화를 회피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이 방법은 가장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 **작가임을 밝히고 솔직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 전문가는 작가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까? 접근하는 방법이 바르게 되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접근법이 바르다는 전제가 있다.

접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 정도는 직접 해야 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기초적인 질문 따위는 곤란하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가 인터뷰를 허락했다면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먼저 인터뷰 시간을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질문은 사전에 서면으로 전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 특히, 의료나 법조, 경찰이나 언론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꼭 지켜야 한다.

그 밖에도 버스 운행 시간표에 관해서 글 속에 써야 한다면 추측을 해서는 안된다.

버스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 사항이 있다.

최선을 다해 글에 사실감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사실처럼 보이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될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 주소나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물론 집주인들은 책에서 자신이 사는 동네가 쾌적하고 날씨가 좋은 곳으로 소개된다면

무척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름이나 지면, 그리고 건물 번호와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짜처럼 그럴듯한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